



조선대, 교육·연구·산학협력 3관왕... '명품대학' 인증

광주·전남·제주권 유일 그랜드슬램 달성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 5년간 170억원 지원...문화인재 양성·교육 선도모델 발굴 등 추진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 재정지원 대형 국책과제 가운데 교육(ACE 사업)과 연구(CK-1사업 및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LINC사업) 부문에 선정돼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삼각 체제를 구축한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특히 조선대는 광주·전남·제주권에서 유일하게 ACE사업과 CK-1사업·LINC사업에 함께 선정됐으며 BK21플러스사업·부리산업 전문기술 인력 양성사업·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지원사업·치매조기진단기술개발사업 등 대형 정부사업에 모두 선정돼 2012년 9월 서재홍 총장 취임 이래 총 976억원의 외부자원을 유치해 획기적인 대학 발전의 발판을 구축했다. CK-1사업은 5년, ACE사업은 4년, LINC사업은 3년, BK21플러스사업은 7년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조선대는 경쟁력 강화의 큰 동력을 갖게 됐다.

오는 2016년 개교 70주년을 맞는 조선대는 그랜드슬램의 대기록 수업을 계기로 '제2의 창학'을 선언하고 지역의 교육, 산업, 경제, 고용, 문화, 복지 의 거점으로서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호남 제1의 거점대학이자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대형 국책 과제 가운데 학부교육선도대학(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육성사업에 지방 사립대학 중 대규모 대학 신규사업에 유일하게 뽑혀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4년 동안 95억원을 지원받아 문화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ACE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4년간 지원함으로써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이다. 조선대는 서재홍 총장의 강력한 의지로 호남지역의 다른 대학보다 한발 앞서 학부교육 개혁을 추진했고,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학습 지원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높은 교육성과를 인정받았다.

ACE사업과 함께 대학 특성화(CK-1)사업에는 ▲호남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브릿지(BRIDGE) 인재 양성 사업단(단장 송경호) ▲과학 문화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 및 콘텐츠 개발 교육 사업단(단장 박현주) ▲지역 산업 기반 융합형 부품소재시스템 특성화 사업단(단장 이종국) 등 3개 사업단이 선정, 5년 동안 75



서재홍 총장이 대학 행사를 앞두고 홍보대사들과 함께 행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조선대 제공>

억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 도입된 CK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으로 대학의 특성과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선대는 2013년 BK21플러스 사업에 호남권역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7개 사업팀(단)이 선정돼 7년 동안 95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 데 이어 CK-1사업에 3개 사업단이 선정됨으로써 지역산업과 결합한 첨단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게 됐다.

조선대학교는 2013년 2월 수립한 장기발전계획 Vision 2020에서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연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축으로 특성화를 제시했으며 중점육성분야 선정에 의해 호남권 미래유망 산업분야와 조선대의 강점 분야(관련학과)를 각각 도출한 후, 호남권 산업환경 대비 조선대 강점분야 분석을 통해 전략적 특성화 분야를 도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재홍 조선대 총장

“함께형” 인재 양성...경쟁력 전국 톱 10 입지 굳힐 것”

“조선대는 ACE사업을 비롯해 국책사업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세우면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삼각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조선대의 미래상을 '함께'형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재홍 총장은 2012년 9월 취임 이래 총 976억원의 외부자원을 유치했다. 1000억원 달성의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서 총장은 “2기 이사회 구성 문제가 계속되면서 대학의 위상이 흔들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그랜드슬

램의 대기록으로 대학 종합 경쟁력에서 전국 TOP 10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VISION 2020에서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으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깊게 가르치고 넓게 보살피는 대학문화를 만들어 '잘 가르치는 조선대'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 교육이 경쟁 위주로 성과중심주의에 빠져 '홀로'형 인재를 양성했다는 반성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함께'형 인재를 조선대의 인재상으로 삼았다”라며 “이것은 조선대의 건학이념인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이라는 3

개 목표를 지식기반 사회의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정립한 인재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선대의 강점은 공동체 정신과 배려하는 마음에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자신감과 창의력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역량인 Confidence, 창의융합역량인 Convergenge, 배려봉사역량인 Consideration을 조선대의 3C 핵심역량으로 제시했다. 이 세 단어에는 모두 'Con'이 있습니다. Con은 바로 '함께'라는 뜻이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한다는 뜻의 3C 핵심역량을 갖춘 '함께'형 문화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동신대 군사학과,

군 장학생 선발 1차 전원 합격

올해 처음 출범한 동신대학교 군사학과(학과장 고재휘) 남학생들이 해병대, 육군 등 군 장학생 1차 선발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동신대 군사학과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해병대 군 장학생 1차 필기시험에 9명이 지원해 전원 합격했으며, 육군 군 장학생 1차 필기시험에도 23명이 응시해 100%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다.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동신대 군사학과는 남학생 23명, 여학생 7명 등 총 3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1학년년부터 응시 가능한 남학생 23명 전원이 육군 및 해병대 군 장학생 1차 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장교 임금이 보장되고 국가로부터 4년간 장학금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이 7대1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전통 있는 수도권 대학 군사학과 합격률도 80%를 밑도는 상황에서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동신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거둔 성과여서 주목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 온라인 토익 책 퍼내

e클래스 동영상 강좌 무료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온라인 토익(문법)' e콘텐츠를 책('Smart e-TOEIC[문법]')으로 펴냈다.

'Smart e-TOEIC(문법)'은 총 30차시(문법 설명 20차시/실전 문제 10차시)로 구성되었으며, 최신 토익 경향을 반영한 일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 교재는 기초교육원 이러닝지원센터와 언어교육원 연구진이 신입생·재학생·졸업생의 영어 실력 향상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했으며 교내서점 및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기초교육원은 학생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문법에 이어 'Smart e-TOEIC(청해)', 'Smart e-TOEIC(독해)'도 펴낼 예정이다.

전남대는 '온라인 토익(문법편)' 강좌 동영상도 지난 4월부터 학생과 교직원 및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콘텐츠는 PC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전남대학교 e클래스(eclass.jnu.ac.kr)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으며, 한 차시 당 30분 내외의 강의 30개로 구성돼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 일곱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강적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방송